

AI 인재육성·오월정신 계승... ‘광주 교육혁신’ 공약 제안

광주시교육청, 교육 발전 위한 4대 정책·6개 과제 각 정당에 전달
AI마이스터고 설립·K-컬처 공연장 조성 등...5·18 교육 의무화도

광주시교육청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AI·미래모빌리티 인재를 키우는 광주교육 등을 골자로 한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선공약에 반영하도록 적극 제안해 광주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시교육청은 23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교육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6개 과제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이 정책과제를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미래교육에서 광주를 선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4대 정책은 AI·미래모빌리티 인재를 키우는 광주교육, 마음 편한 교육공동체·건강한 광주교육,

예술과 스포츠가 생활이 되는 광주교육, 오월정신, 이제는 모두의 교과서 등이다.

‘AI·미래모빌리티 인재 양성’의 핵심은 AI, 미래모빌리티 등 광주 5대 전략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육성 고등학교 ‘AI·미래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설립이다.

지역 인프라 발달에 발 맞춰 첨단산업 인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실전형 기술인재를 양성해 광주교육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마음 편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위해 정신건강 통합지원기관 ‘광주교육 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전문의, 임상심리사, 예술치유사 등을 배치해 정신건강 관련 예방·발견·치유·회복·성장 등을

아우르는 마음건강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예술과 스포츠의 일상화’는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맘껏 뽐낼 수 있는 학생 전용 공간 ‘K-컬처 공연장’을 조성하고, 노후화되고 혼란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체육중·고’ 이전 및 ‘글로벌청소년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을 담았다.

‘오월 정신 확산’은 5·18 왜곡, 편해를 막고 미래세대의 민주시민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전국학교를 대상으로 한 ‘5·18 교육 의무화’ 등 2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광주교육을 위한 4대 정책·6개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주는 AI와 미래모빌리티, 문화예술, 스포츠, 오월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도시”라며 “광주의 정체성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광주교육 4대 정책이 제21대 대선 공약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3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교육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호남 SOC 확충·2036년 올림픽 전북 유치 지원해야”

광주·전남·전북기자협회, 28일 호남공약발표회

호남지역 언론계와 연구기관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미래를 결정 지을 공약 제안에 나선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전북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혁신호남포럼 창립준비위원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호남공약발표회’가 오는 28일 순천에서 개최된다.

이날 발표하는 호남공약은 광주·전남·전북연구원과 대혁신호남포럼, 좋은정책포럼이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지역별 핵심 공약 5개와 3개 부문 호남광역공약을 선별했다.

호남권 내 연구기관과 민간정책포럼, 기자회견가 함께 광역 공약 발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광역 공약안은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의 조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과 광주연구개발특구부터 영광까지 이어지는 ‘광주 신산업선’, 광주송정·서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를 포함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담겼다.

이들은 고흥, 광주, 전주, 세종 등 호남권 내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광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북의 2036년 세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차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호남 광역공약의 예타 면제와 정책성, 국가균형발전 기반의 예타 제도 혁신, 행정안

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 후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 신설 등도 제시했다.

지역별 핵심 공약으로는 광주의 경우 ‘AI모델 시티 The BRAIN 광주 조성’,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5·18 규모지 민주공원 조성과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청 설립 등이 포함됐다.

전남은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과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대표공항 육성’을 선정했다. 단체는 다음달 7일 전주에서도 공약 발표회를 갖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1호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기’ 가동

연간 9793MW 전력 생산

전남에서 첫 해상풍력 발전기가 가동에 들어간다.

23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4일부터 4.3Mw(메가와트) 규모의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기’ 발전을 시작한다. 영광 약수 해상풍력은 영광군 백수읍에서 직선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 지난 2019년 산업자원통신정보통신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한 이후 6년여 만에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 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요구되는 주민 수용성도 동반되면서 전남에서 가장 먼저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

전남개발공사가 190억원을 투입한 영광 약수 해상풍력은 타워 높이 95m, 회전 반경 151m의 중형급 발전기다.

영광 약수 해상풍력의 연간발전량은 9793Mw.

4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된 전력은 총 길이 3.72km의 해저케이블을 통해 육상으로 송전된다.

영광 약수 해상풍력은 전남 1호 발전기라는 타이틀 외에도 산업의 ‘쌀’로 불리는 풍력의 운영·관리 노하우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사업에 들어간 모든 기자재와 기술을 국산화 하면서 국내 풍력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지난 22일 산자부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에 따라 오는 2031년까지 추진하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을 앞두고 첫 가동에 들어갔다.

전남개발공사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323Mw급 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추후 집적단지 사업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영광=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도, 대선공약 TF 발족...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 총력

김영록 지사 국회 방문

국립의대 설립 등 제안

전남도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선공약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지역 현안의 대선공약 반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인사인 윤후덕, 김영진 국회의원,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를 만나 전남도의 주요 현안과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AI·우주·에너지 등 미래산업과 연계된 핵심 사업을 소개하며 전남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주요 건의 과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 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이다.

이날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도 정진욱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전남도의 현안사업을 추가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이날 대선공약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박창환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신성장동력, 핵심 SOC 등 5개 정책 분과에 15개 실·국장이 참여한다.

TF는 선거운동 기간 내 공약 반영 활동과 함께 대선 이후 공약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새정부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이번 대선을 통해 실질적 국가 성장 전략에 포함되길 기대한다”며 “정책 제안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공원 포차거리서 버스킹 공연 즐겨요”

5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공연

광주공원 앞 포장마차(포차)거리의 주차장이 거리공연장으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광주공원 앞 청춘빛포차광장이 4월26일부터 5월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8시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지는 ‘청춘문화누리터’로 변신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춘문화누리터’는 매주 주말 어쿠스틱·재즈·아카펠라 등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들이 걷고 머무르는 문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청춘문화누리터’를 ‘대·자·보(대중교

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첫 번째 실증사업으로 운영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검증하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방침이다.

청춘빛포차광장은 자동차 주차장을 폐쇄해 시민들이 모여 활동하는 광장으로 전환해 ‘대자보도시 실증 1호’로 선보이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청춘문화누리터에서는 ‘청춘버스킹’을 주제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버스킹 20개 팀이 포크, 어쿠스틱, 재즈, 아카펠라, 색소폰 등 다양한 장르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